

경험 쌓을수록 쑥쑥... '24기 돌풍' 심상치않네

공태민·박진영 나란히 1착 7회씩
오기호 거침없는 선행승부 존재감
특선급 위협할 다크호스 역할 기대



올해 데뷔한 경륜 24기 신인들이 실전 경험을 쌓아가면서 기량을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24기 트로이카'라 불리는 (왼쪽부터)공태민과 박진영, 오기호가 경륜 팬들로부터 눈도장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올해 데뷔한 22명의 경륜 24기 신인들은 현재 선발급과 우수급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데뷔와 동시에 돌풍을 일으킨 선배들과 비교하면 활약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형민(29·창원A), 이주현(24·광주)이 특별승급에 성공하는 등 차츰 실전 경험이 쌓일수록 기량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선수가 '24기 트로이카'로 불리는 공태민(30·양주), 박진영(24·창원A), 오기호(25·유성)다.

24기 수석졸업생으로 기대를 모았던 공태민은 데뷔 무대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1월 4일 데뷔전에서 기존 강자 손동진을 뒤에 붙이고 호기롭게 선행승부를 펼쳤으나 탈미를 잡혔다. 다음 날 다시 선행을 했으나 황선모, 정중교에게 연이어 잡히면서 3착에 그쳤다. 낙승이 예상됐던 일요경주도 천신만고 끝에 첫 승을 신고했다.

다행히 실망감이 기대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2월 14~17일 창원 경주에 출전한 공태민은 데뷔전에서 패배를 안긴 손동진과 다시 붙어 설욕했다. 거침없는 선행과 쫓기 승부를 통해 결승전을 포함해 가법계 4승을 챙겼다. 11일까지 12회 출전해 1착 7회, 2착 2회, 3착 2회에 승률 58%,

연대를 75%를 기록하고 있다.

공태민과 같이 창원 경주에서 데뷔한 차석 졸업생 박진영은 데뷔 2경기 만에 첫 승에 성공했다. 3월 1~3일 창원 경주에서는 3연승을 기록했다. 특히 결승에서는 특선급 출신의 김동관, 김연호, 이용희 등과 같이 경주에 나서 선행으로 내달리면서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우승했다. 박진영 역시 올해 12회 출전해 공태민과 똑같이 1착 7회, 2착 2회, 3착 2회, 승률 58%, 연대를 75%를

기록 중이다.

훈련원 4위인 오기호는 잠재력만큼은 공태민, 박진영 못지않다는 평가를 들었다. 지난해 12월 시범경주에서 박진영의 쫓기기를 막아내는 선행 우승으로 주목을 받았다. 오기호는 기존 강자들 앞에서도 거침없는 선행승부로 존재감을 알리고 있다. 2월 8일 창원 금요경주에서는 우수급 최고의 테크니션 박일호를 뒤에 붙이고 3코너 쫓기 승부로 첫 승에 성공했다. 2월 24일 결승에

서도 반주 전 쫓기 승부로 2착하며 쌍승 64.2배, 삼쌍승 361.5배를 터뜨렸다. 현재까지 12회 출전해 1착 1회, 2착 8회, 3착 2회, 승률 8%, 연대를 67%다.

예상지 '경륜박사'의 박진수 팀장은 "공태민, 박진영, 오기호는 실전 경험이 더 쌓이고 승부거리를 조율하는 요령이 생기면 우수급을 평정하고 특선급에서도 다크호스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사설경주 신고하세요”

경륜경정 불법신고센터 개소
민간모니터링단도 10명 선정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부는 6일 미사리 경정장에서 경륜경정 불법신고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불법 사설경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 모니터링단 10명도 선정해 발대식을 함께 진행했다. 경륜경정 불법신고센터와 민간 모니터링단은 윤·오프라인 불법신고를 담당하며 불법 사설경주 근절에 앞장서게 된다.

경륜경정 불법신고센터는 미사리 경정장 1층에 위치했다. 불법 사설경주와 관련된 정보가 있을 때에는 이메일(singo@kspo.or.kr)이나 전화(1899-0707), 또는 직접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불법신고센터는 지난해 11월 광명 스피돔에 처음 문을 열었고 올해 안으로 3개 장외지점(장안, 분당, 관악)에도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정병찬 경륜경정총괄본부장을 비롯해 한민호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륜경정총괄본부 관계자는 “불법신고센터 개설이 불법 사설경주를 근절하고 경륜경정사업의 건전 레저스포츠 이미지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용운 기자

진짜 같은 실내 자전거 경주...최강자 가린다

인도어 사이클링 대회 참가자 모집
내달 6일 광명 스피돔 2층서 개최

“동호인 여러분, 실내 사이클링 대회 참가하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부는 '2019 KSPPO 인도어 사이클링 마스터즈 챔피언십'(이하 'KSPPO 인도어 사이클링') 참가자를 15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

인도어 사이클링은 실내에서 실시하는 모든 자전거 활동으로 세계사이클연맹(UCI)

에 '아티스틱 사이클링'과 '사이클-볼'이 정식종목으로 등록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스마트 트레이닝 롤러를 활용한 라이딩과 경주가 개최되고 있다.

'KSPPO 인도어 사이클링'은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저조한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기획했다. 이번 대회는 스마트 트레이닝 롤러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즈위프트)을 활용한 인도어 경주로 실제 자전거를 타는 것과 유사한 데이터(시속, 경사도, RPM 등)를 제공한다.

대회는 4월 6일 광명 스피돔 2층 라운지



실내 사이클링 대회 'KSPPO 인도어 사이클링'이 참가자를 모집한다. 지난해 열린 '하나투어 즈위프트 챔피언십' 대회.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에서 열린다. 예선을 거친 남녀 각 8명이 결승 경주를 펼친다. 입상자(남녀 1~3위)에게는 총 330만원의 상금과 부상으로 트로피를 수여한다. 대회 중간에는 경륜 선수

4명과 엘리트 선수 4명이 참가하는 특별경주도 열리며, 우수 선수 적중 이벤트에 참가한 관객에게는 기념품과 '2019 백두대간 그라운드 참가신청서'를 증정한다.

참가 자격은 대한자전거연맹 MCT 2019 등록선수 중 일정 자격을 충족한 사람이다. 남자 64명, 여자 16명으로 80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접수는 스포츠레저 TV(SLTV) 홈페이지(http://www.slvtv.co.kr/event)에서 진행한다.

이번 대회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 주최, 즈위프트 코리아 주관, 대한자전거연맹 후원으로 열리며, 인터넷(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정용운 기자



여자농구 PO 1차전 대상 W매치 55회차 발매

우리은행 올시즌 5승2패로 우수
평균 득점도 삼성생명보다 앞서

플레이오프(PO) 1차전에서 먼저 웃는 팀은 누구일까?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도토 수탁사업자인 케이토도(www.ktoto.co.kr)가 14일 오후 7시 아산이순신빙상장체육관에서 열릴 여자프로농구(WKBL) PO 1차전 우리은행(흥)-삼성생명(원정)전을 대상으로 농구도토 W매치 55회차를 발매한다.

1경기 양 팀의 전반(1, 2쿼터)과 최종(전반 합산) 점수대를 맞먹어야 하는 W매치게임에서 이번 회차는 PO 첫 경기라는 점에서 승리 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은행과 삼성생명이 2018~2019 WKBL PO 1차전에서 만난다. 올 시즌 우리은행은 27승8패로 KB스타즈에 이어 2위로 정규리그를 마감했고, 삼성생명은 19승 16패로 3위에 올라 PO에 나섰다.

올 시즌 PO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위 세 팀 전력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흥미로운 사

실은 항상 챔피언결정전에 직행하던 우리은행이 PO로 떨어진 점이다. 낮은 광경이지만 그만큼 동기부여가 확실할 수 밖에 없다.

시즌 순위에서 삼성생명보다 좋은 성적을 기록한 우리은행은 이번 시즌 양 팀간 대결에서도 5승2패로 우세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맞대결 승부에서 평균득점 72.6점으로 82.3점의 삼성생명보다 훨씬 높았다.

단기전으로 끝나는 PO 특성상 1차전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나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고 있는 우리은행이 안방의 이점까지 차지하고 있어 우세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농구도토 W매치 55회차는 경기 시작 10분 전인 14일 오후 6시 50분 발매가 마감되며, 경기가 종료된 후에 적중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농구도토 W매치는 전 WBL PO 경기를 대상으로 발매하며 삼성생명-우리은행전(PO 2차전)을 대상으로 할 농구도토 W매치 56회차는 3월 15일 오전 9시 30분 발매를 시작한다.

NBA 휴스턴-GSW전 승부 예측 이벤트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도토의 수탁사업자 케이토도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14일 오전 10시30분 도요타 센터에서 열릴 2018~2019 미국프로농구(NBA) 휴스턴(홈)-골든스테이트(원정)전을 대상으로 승, 패를 맞히는 승부 예측 이벤트를 진행한다.

제임스 하든의 활약에 힘입어 서부지구 3위까지 순위를 올린 휴스턴과 서부지구 1위에 올라있는 '디펜딩 챔피언' 골든스테이트가 펼치는 이번 대결은 플레이오프(PO)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은 서부지구 강자들의 승부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양 팀의 지난 시즌 맞대결 성적은 포스트시즌을 포함, 5승5패로 팽팽하다. 올 시즌은 사정이 다르다. 리그 3차대 대결에서 휴스턴이 전승으로 우세했다. 특히 두 번째 대결이던 1월 3일 승부는 일진일퇴의 치열한 경기를 펼쳤으나, 휴스턴이 1점차(135-134)로 이겼다.

휴스턴은 올 시즌 초반 서부지구 중위권 이하의 성적에 머물렀었지만, 이후 제임스 하든의 폭발적인 공격력으로 상승세를 탔다. 크리스 폴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더블

어 슈비에서 활약을 펼치는 PJ터커와 센터 클린트 카펠라 등이 고루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렇듯 물이 오른 휴스턴은 최근 8연승을 기록하며 서부지구 3위에 올라갔다.

커리와 탐슨, 두란트가 탐을 이끄는 골든스테이트는 새로 영입한 커즌스가 부상에서 회복하고, 예멘코가 꾸준한 활약을 펼치는 등 탄탄한 전력을 선보이고 있다. 리그 순위에서도 리그 2위 덴버와 1.5게임차로 붙이며, 서부지구 1위에 올라갔다.

다만 최근의 행보는 지금까지의 경기력과 차이가 있다. 골든스테이트는 최근 10경기에서 한 번도 연승을 하지 못했고, 이중 4차례 승부는 5점차 이내의 접전을 펼쳤다. 월등했던 과거의 경기력을 돌이켜볼 때 다소 분위기가 침체된 양상이다. 특히 10일 펼쳐진 서부지구 15위 피닉스와 대결에서 111-115로 패해 충격을 더했다.

이번 이벤트는 응원 팀에 투표 후 경기 승, 패를 댓글로 달면 참여가 완료된다. 이어 NBA 승부 예측 이벤트는 14일 경기 시작 10분 전인 10시 20분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당첨자는 15일 댓글 및 페이스북 페이지로 개별 통보한다.

스포츠도토는 100원부터 가능 소액참여 할 때 가장 재밌어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도토 수탁사업자인 케이토도가 스포츠 팬들에게 건전한 소액 참여의 즐거움을 강조했다.

팬들이 꼽는 스포츠도토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100원부터 구매 가능한 소액참여 기능이다. 국내 유일의 합법 스포츠베팅인 스포츠도토는 1인당 1회 100원부터 10만원까지 참여 가능하며, 온라인 공식 발매 사이트인 베팅맨은 100원부터 5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안정적인 스포츠도토 판매로 조성되는 수익금의 대다수는 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되며 이는 국민들의 체육복지 향상은 물론 대한민국의 스포츠 발전을 위해 요긴하게 쓰이고 있어 토도팬들의 건전한 구매 활동은 공익적인 의미까지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스포츠도토의 구매 경향을 살펴보면 대다수 게임에서 1인당 평균 구매금액이 1만 원 이하로 기록되는 등 건전한 스포츠레저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